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작은 고을 베들레헴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

Tag: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2:1-6)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도시이다. 두 도시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같린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고 산들에 싸여 있어서 수성에 유리하여 왕궁이 들어서기에 적합하고, 베들레헴은 목초지가 많아 양치기에 적합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명하고 화려한 반면 베들레헴은 평화로운 촌락이었다.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도시인 반면 베들레헴은 목자들의 도시이다.

당시에 목자는 가장 혼한 서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베들레헴은 언어적인 의미에서 ‘떡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배가 고플 때쯤 도착하게 되어 떡집을 찾는 자들이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다윗이 목동생활을 했던 곳이다.

다윗 이야기의 등장을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었다.

시어미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룯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벧을 낳았고, 오벧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는데 모두 죽임을 당하는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집안이었고, 후에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성경에서 베들레헬은 다윗의 동네로 알려졌다. 다윗은 후에 밋세바와 결혼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라합도, 룯도 이방여인이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들이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계시적 스토리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5

어떤 학자는 시편 51편5절 말씀과 당시 다윗의 집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 다윗이 혼외자 이거나 출생의 비밀이 있는 자로 판단하였다. 다윗은 막내였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본가와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왔을 때에도 다윗은 그 축에 끼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불러 온 자다.

하나님은 다윗이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지만, 정성껏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을 보고 그를 왕으로 지목한 것이다.

훌륭한 목자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약조 하셨다.

그래서 작은 고을 베들레헬의 의미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자를 지목하시고, 초라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지목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복음의 기

본적인 원칙을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시하신 셈이다.

솔로몬부터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였다. 몇백년의 왕조가 이어지면서 왕들은 타락하였고, 신앙은 율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셨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항상 경건한 자들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지키신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귀향하게 하셨고, 로마치하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당시에는 이미 근동이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으로 헬라화 되어 있었고, 유럽은 로마를 통해서 하나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셈이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솔루션이 피의 제사에 국한 되어 있었고, 제사의 대상 역시 하나님께만 국한되어 있었다. 결국 경건이 유지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선별된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

타락이후 인류는 저주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흠어져 살게 된 나라들 중에 군데 군데 피의 제사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지만, 속죄의 조건이 되는 율법,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사명과 헌신에 관한 실천이 없는 속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구약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있다. 즉, 그 누구의 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진정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은 타락한 인간의 현세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셈이다. 유대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속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누구든 예수를 믿고 죄에서 떠난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다.

누구든 죄와 저주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할렐루야~

<찬양예배>

제목 : 악이 비록 성하여도

성경: 사무엘상 26장 1-12절

Tag: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찌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삼상26:1-12)